

2018년 4월 24일

csf@kiep.go.kr

중국의 신(新)시대 대외개방 전략



- 시진핑(習近平) 주석이 4월 10일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(博鳌) 포럼 개막연설에서 새로운 국면의 대외개방을 선언한 이후, 각 분야별로 개방 방향 및 세부 조치가 발표되고 있음.
 - 시주석은 특히 △시장진입 규제 완화 △투자환경 개선 △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화 △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△금융서비스 개방 확대 등을 강조함.
-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부주임 롱궈강(隆国强)은 신형대국으로서 중국은 경쟁력 향상을 새로운 전략으로 삼아 세계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기술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대외개방에 있어 자원과 금융의 안전을 강조.
 -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발전해야 함.
 - 중국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은 대외개방의 부족과 지나친 내부관리 때문으로, 전면 개방과 개혁 심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역설.
 -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원활한 양자 관계를 형성해야 함.
 - 지역협력전략으로는 일대일로를 통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개방구조를 형성하고 일대일로 체계와 규칙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.
 - 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항을 서비스업 개방의 중심으로 삼고 선진경제 FTA와 국제 자유무역항 규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.
- 외자 금융기관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 범위도 확대하면서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화 할 계획

- 중앙은행 총재 이강(易纲)은 금융 개방 3대 원칙을 중심으로 금융보험업의 대대적인 개방을 강조하면서 6월말까지는 은행·증권·파생상품·보험 관련, 금년 말까지는 신탁·리스·자동차금융·화폐중개·소비금융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철폐를 발표.
 - 금융 개방 3대 원칙으로 △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적용 △환율시스템 개혁과 자본계정 태환 추진 △금융 리스크 예방 중시 등을 제시함.
 - 중국 현지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, 증권·펀드·선물·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제고(49%→51%) 등 외자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보다 구체화.
 - 또한, 3년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외국투자자의 보험대리 및 보험평가 업무를 허용하고 외국계 보험중개회사의 경영 범위를 중국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.
 - 미국 콜롬비아 대학 금융학 교수 웨이샹진(魏尚进)은 중국이 적절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내 금융 시스템, 노동시장, 공공관리 환경의 다양한 왜곡을 완화하고 국제자본시장의 리스크 전이를 막을 수 있어야 금융개방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.
- 자동차 등의 수입관세를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통해 세계 1위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을 꾀함.
- 현재 25%인 자동차 수입관세를 상당 폭 낮추고 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자본의 지분 한도를 폐지할 계획.
 -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은 금년 내에, 상업용은 2020년, 승용차종은 2022년에 지분 한도를 폐지.
 - 다양화, 개성화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△ 내구소비재 △ 양질의 의약품 △ 건강보조식품 △ 스마트 정보 단말기 △ 문예 용품 △ 공예품 등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함.
 - WTO 규정에 따라 △ 자동차 △ 의약품 △ 건강보조식품 △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검열 및 검역에 대한 국제협조를 강화하며 통관의 편리화를 추진.
- 이밖에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 비용을 상향 조정하고 법률의 위력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임.
- 판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계획.
 - 북경사범대학 금융연구중심 종웨이(钟伟) 주임은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이 △ 관세인하 △ 충실한 WTO 가입 약속 이행 △ 지재권 보호 △ 비즈니스 환경 개선 △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운영 지원 △ 외자유치 가속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.
 - 보아오 포럼 이후 중국은 암 치료 관련 약품의 수입 관세를 없애고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관세를 대폭 인하함.

참고문헌

- 「中国发展网」, 「新时代推动对外开放再扩大 促进新时代合作共赢」, 2018년4월11일
- 「中国金融四十人论坛」, 「新一轮金融开放已在路上, 如何才能获得成功?」, 2018년4월15일
- 「中国金融四十人论坛」, 「钟伟深度解析中国对外开放思路」, 2018년4월16일
- 「中国金融四十人论坛」, 「隆国强:如何与时俱进地调整新一轮开放战略?」, 2018년4월19일

(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)